

04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855-23-964-022, +82-2-6200-1725
 Fax. +855-23-964-033
 E-mail. cambodia@jipyong.com

Main Contacts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E-mail. kiban@jipyong.com
 Tel. +855-23-964-022, +82-2-6200-1725

본사 캄보디아팀

이행규 변호사
 E-mail. hglee@jipyong.com
 Tel. +82-2-6200-1744

설립일

2009. 3. 1.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는 캄보디아 부동산시장이 급성장한 2008~2009년 부동산개발 및 PF 자문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자본시장(IPO) 관련 자문, 한화 및 현대로지스틱스 등의 합작 진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자문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금융시장 진출 자문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캄보디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무소의 전문성은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아, 중국, 일본, 태국 및 말레이

시아 등 비한국계 기업은 물론 캄보디아기업 및 캄보디아 정부를 위한 자문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법률과 실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실무 관행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사무소는 지난 9년간 쌓아 온 압도적인 전문성과 현지 실무경험 및 대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에 적합한 가장 실효적인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 로컬 로펌 - 캄보디아 대관 네트워크 확대 및 큰 규모 거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최대 local law firm인 HBS Law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 뉴질랜드 College of Law New Zealand, Professional Legal Training
- 호주 Sydney Law School 법학석사(LL.M.)
- 뉴질랜드 변호사(2009년)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장
-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Somala Chea
외국변호사(캄보디아)

-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법학석사
- 캄보디아 National University of Management 경영학석사(MBA)
- 캄보디아 Royal Academy of Judges and Prosecutors 연수원 수료
- 캄보디아 Mekong Law Group 변호사
- 캄보디아증권위원회(SECC) 등록 변호사
- CSL & Associates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외국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2-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사회학)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M&A, Joint Venture,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IPO 및 자본시장,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투자 등

주요 실적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제1호 상장기업인 Phnom Penh Water Supplies Authority (PPWSA)의 IPO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제1호 종합증권회사인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캄보디아)가 주관한 캄보디아 국영기업 PPWSA의 캄보디아증권거래소 IPO를 자문한 바 있습니다.

PPWSA의 IPO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IPO 건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법과 상장규정이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입니다. 지평 캄보디아 사무소는 PPWSA에 대한 실사와 Disclosure Document(한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 작성에서 Underwriting Agreement

(인수계약) 체결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PPWSA의 IPO는 그 누구도 경험이 없는 캄보디아의 첫 IPO였다는 점에서 업무 진행 과정에 애로사항이 매우 많았는데,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 협의 과정 및 지평 국내 자본시장팀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저희가 한국 로펌으로서 최초로 외국의 국영기업을 자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서 한국 로펌의 해외진출에 있어 쾌거를 이룬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 공기업의 캄보디아 M&A 관련 자문

태국 공기업을 위한 캄보디아 석유회사에 대한 법률 실사, 주식양수도계약 검토 등 캄보디아 M&A 관련 제반 업무를 자문한 사례이며, 캄보디아 M&A 부문에 있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외국기업들도 자문 제공

한화 무역부문의 캄보디아 합작법인 설립 자문

한화 무역부문을 대리하여 캄보디아의 쌀 수출 전문 업체인 Amru Rice와의 Joint Venture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로, 합작계약 체결부터 캄보디아 합작법인 설립에 쌀 유통업에 필요한 현지 인 · 허가 취득 업무까지 현지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

- 현대로지스틱스의 캄보디아 물류사업 합작법인 설립 자문
- 포스코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자문
- GS건설의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및 매각 자문
- BNK캐피탈의 캄보디아중앙은행 Microfinance Institution 인가 취득 자문
-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제1호 상장기업인 프놈펜수도청(PPWSA) IPO 관련 법률자문
-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제3호 상장기업인 프놈펜항만공사(PPAP) IPO 관련 법률자문
- 캄보디아 재경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C)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용역
- 대우인태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투자 자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국내 저축은행 계열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계열 파산재단이 보유한 다수의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한 사례로,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은 물론 매각공고와 매수자 물색, 협상 등의 업무까지 포괄적인 매각 관련 자문을 수행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Microfinance Institution 인수 자문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Microfinance Institution(소액대출금융기관)인 Malis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 Malis는 현재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로 상호명이 변경되어, 지점 개설 등을 통해 현지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의 강점

지평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는 본사의 유관 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9년간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국내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캄보디아 M&A, Joint Venture, 부동산개발 및 매매, 금융기관 진출 업무에 있어서 국내 그 어떠한 법무법인보다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IPO 및 자본시장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주요 실적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내 독보적인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장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캄보디아 진출 및 투자 관련 업무에 있어 국내 그 어떠한 법무법인보다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캄보디아 법률에 대한 연구, 현지 networking 및 현지 IPO와 M&A 수행 경험들로 인하여 한국 로펌으로서 캄보디아 내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캄보디아기업 M&A, 합작투자, 현지 사업법인 설립 및 인·허가 취득 업무, 부동산개발(매각, 매수 자문 포함), 현지 IPO(pre-IPO 자문 포함) 및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가 수행한 업무들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캄보디아 증권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에 있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총 5개인데, 그 중 두 기업(프놈펜수도청 및 프놈펜 항만공사)의 IPO 관련 주관사 측 법률자문을 저희 지평 캄보디아 사무소가 수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어떠한지?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2018년에 있을 총선 결과가 캄보디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경우 2008~2009년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줄었는데, 금융업, 유통·물류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한국거래소, KMAC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캄보디아 재경부 및 증권거래위원회를 위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연구용역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 간 축적한 캄보디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캄보디아 경제개발에 필요한 증권시장의 틀을 구축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현재 업무와 생활은 어떠한지?

현재는 서울-프놈펜을 자주 오가며 캄보디아 금융기관 매각, 인수 자문과 캄보디아에서의 IPO를 염두에 둔 pre-IPO 투자 관련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공항 라운지나 기내, 호텔 등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과 떨어져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균형있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은 소회는?

저는 지평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되던 시점에 동남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지평에 입사했습니다. 지평 해외진출 10주년이란 지평에서의 제 성장과정을 돌이켜 보고, 제 목표와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바, 저희 해외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 한경태 법인장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제1호 종합증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2006년 말 동양그룹이 증권업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캄보디아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캄보디아 재경부의 금융자문사로 선정되었고 캄보디아 제1호 증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캄보디아 제1호 IPO를 단독으로 주관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가 현지에서 주관하신 프로젝트 중 특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첫 번째 IPO가 가장 힘들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주식시장 설립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만큼 배운 점도 많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평의 반기일 외국변호사님과는 같이 밤샘 작업을 하면서 저희 회의실에서 침낭생활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에서 영업 중인 많은 증권회사들 중 가장 많은 업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성공 비결 등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가 타 증권회사들과 다른 점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험이 유안타증권의 최대 장점입니다. 타 증권사들의 경우, 법인장이 2~3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현지 사업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바로 사업 전략을 변경하는데, 결국 6개의 종합증권사 중, IPO나 M&A의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사실상 2~3곳에 불과합니다. IPO와 M&A 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의 유의미한 딜을 경험한 곳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와 같은 초기시장에서, 증권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결국, 소수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진출 이래 현재까지 8년 넘게 지평 캄보디아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평이 보유한 현지 경험과 지식 때문입니다. 8년 넘게 모든 주요 딜을 같이 진행해왔고 결과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한 팀이라는 느낌입니다. 또한, 지평의 장점은 완벽하게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변호사분들이 계셔서, 한국-캄보디아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과의 딜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현지 영미계 PE firm에 최초의 CB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증권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캄보디아 증권시장 성장 과정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교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유안타증권 캄보디아의 역할 및 목표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후진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ASEAN 전체 시장의 한 부분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킬링필드)라는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 발전 정도가 수십 년 뒤쳐졌지만, 지역 경제의 통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시장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안타증권은 캄보디아에서 1등 증권사의 지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장이지만, 캄보디아라는 한 국가에서 1등 증권사로 자리잡고 IB업무 이외에 투자유치, 자산 운용 업무로도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